



2008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하나님의 소망이 영글어가는 “한 여름 밤의 꿈”

쿵쾅 쿵쾅 쿵쾅작 쿵쾅... ㄹㄹㄹ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만감이 교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기쁨에서 원망과 부끄러움으로 그러다가도 더없이 행복한 순간으로 교차되는 감정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유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따라 순간순간 맞이하는 결과들이 '쿵'과 '쾅'으로 혹은 '쿵'과 '쾅'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소망이 풍성히 영글어가는 여름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몸으로 뛰어가며 채워 나간 시간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어우러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계절입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Shall We Dance? 이 여름에 설레는 마음으로 한 꿈

을 꾸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 기도와 몸으로 뛰는 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수 많은 '쿵'과 '쾅' 혹은 '쾅'이 어우러져 연주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음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춤을 추는 우리 자녀의 모습, 아름다운 무도회를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만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여름의 터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대하심만큼이나 소망하심만 한, 가슴줄이심일까요 아니면 어제 본 드라마를 다시 보시는 듯한 덩덤하심일까요? 궁금하시면 와 보세요.

(관련기사 4면에 계속)

정요섭 목사

수련회 일정

썩트네	7.19~20	교 회	초등부	7.27~29	양평 농원
영아부	7/20	교 회	소년부	7.26~28	경기도 수동벨리
유아부	7.26~27	교 회	중등1/2	8.8~10	양평 리조트
유치부	7.26~27	교 회	비전트립	7.28~8.2	우즈베키스탄
레인보우	8.8~10	교 회	고등부	7/25~27	여산 수련원
유년부	8.3~5	안성 엄마목장	비전트립	8.4~8	교토 나고야

로 템 나 무

참새의 마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18:14)

옆집 울타리에는 전나무가 일렬로 늘어서 있다.
그 가운데 한 그루가 죽은 것 같다.
마른 가지에 푸른 잎이 하나도 없다.
푸르른 나무들 속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다.
왜 자르지 않고 그냥 두느냐고 물어보았다.
혹시라도 살아날까 해서 베지 않는다고 한다.

그 나무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놀러 왔다.
예쁜 소리로 지저귀며 마른 가지에 앉아 있다.
'어서 일어나봐. 너는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무의 여기저기를 매만진다.
작은 발자국을 동동 구르며 나무를 깨운다.

그 작은 참새의 마음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사람만 만나려는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하려는 나를.
메마른 가지 같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잊은 채

작은 참새가 나의 마음의 창을 두드리고 간다.

주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아멘.

엄혜숙 집사



주님의교회 엠블렘(C.I) 공모

우리교회는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비전(가치 참조)에 맞는 창조적이고 신선한 심벌마크와 로고디자인을 통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주님의 교회 엠블렘을 공모합니다.

작품 응모 기간 : 08.9.1 ~08.9.30. 결과 발표 : 2008.11.16.(추수감사주일)

시상 내역 : 상금 200만원 및 상패 * 자세한내용 교회 홈페이지 참조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단기선교팀 파송 3면

호스피스 환자분의 편지 3면

어와나 인게임즈 4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3

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대치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입니다. 오히려 함께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해석과 적용의 문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의 본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당장 다가오는 느낌은 성경이 거룩하다는 느낌입니다. 전혀 새롭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원문에 따라서 새롭게 번역하는 과제를 받습니다. 과연 지금 번역이 원문에 얼마나 충실하나? 제 기억으로 처음 대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제 기억으로는 헬라 말로는 본문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이 있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끝 부분에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식입니다. 특히 원문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 말로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복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과연 이 단어를 복이라는 말로 쓸 수 있을는지, 아니면 행복이라는 말이 나올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심령이라는 말도 과연 심령이라는 말이 나올는지, 아니면 마음이라는 말이 나올는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번역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해석한다고 무척 고생했습니다. 요즈음 고생하는 것은 해석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생합니다. 과연 내가 이 본문에 따라 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이 본문에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복을 따르는 목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회

신학자들은 오늘날 목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복을 따르는 목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따르는 목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목회,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목회, 수많은 종류의 목회가 있지만, 모든 목회를 이 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을 따르는 목회는 축복을 강조하고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많은 경우 내세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목회는 사회 구원을 강조하고 사명을 강조하고 그리고 현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두 목회 사이에 우세는 단연 축복 중심의 목회입니다. 복을 강조할수록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사로서는 당연히 축복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텔레비전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장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목회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는, 복의 목회를 비난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라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복 받는 것이 전부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속 신앙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과 하나님 나라의 조화

지난 주에 교회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 다. 어느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정말 용기를 치하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교인들이 떠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을 말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떠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의외로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요즈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행여나 복을 잃어버릴까 해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에는 두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단어 사이에 조금도 갈등이 없습니다. 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무려 8번 반복하셨습니 다. 복에 대한 강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장,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설명입니다.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진정한 목적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너무나 복 받는 것을 심히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축복입니다. 여기에 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축복을 바라보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

광 돌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축복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합쳐질 때 비로소 그 축복들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대치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입니다. 오히려 함께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 다.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데 힘써야 합니다.

복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합니다!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왕국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가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으로부터 돌아서서,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로부터 돌아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움으로부터 돌아서서 밝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가난이 있고 동시에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기에 가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갖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이 땅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가야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아울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귀케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존재

성도 여러분, 사람의 참된 가치는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았다. 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았고, 헌신했더라.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때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 다. 그물을 버렸다는 뜻은 자신의 직업을 버렸다는 말이요 자신의 자신됨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복입니다.

단기선교팀
파송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님의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말미에 주님의교회 이름으로는 첫 해의 선교사의 파송식을 올리는 등 선교하는 교회로 도약의 진통을 겪고 있다. 2008년 청년의 때를 맞게 된 주님의교회는 나눔과 섬김을 소중히 여기며, “땅끝까지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시는 폭포소리 같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국내외 선교사역 확장과 1구역 1선교지 기도후원으로 응답하기로 한 바 있다.

선교사역본부는 선교교육행정팀과 중보기도팀의 주관으로 3월 2일부터 6월 15일 까지 중보기도 모임과 선교학교를 운영하여 약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선교사 지원팀, 농어촌교회사역팀, 도시개척교회사역팀은 기도 및 소정의 후원 외에, 창립 20주년 기념일을 맞아 해외 목회자 초청(Global Network의 구축) 및 국내 후원 교회 목회자를 초청(구역과 자매결연)하여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한 금난새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 전문인선교팀, 재한외국인선교팀, 탈북자사역팀, 군부대교회사역팀은 다문화 가정자녀와

근로자, 군부대 등을 매월 찾아가 치의료, 이미용, 법조, 교육 등의 봉사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단기선교팀은 이상의 선교본부의 각 팀과 복지사역본부 및 교육사역본부 등의 협력과 전 교인의 관심 가운데, 총 7팀의 통합기능 해외 단기선교팀을 구성하였다. 교육행정팀의 도움으로 단기선교 참여자를 위한 특별교육과 이미용 특별교육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인원제한으로 30명의 미용교육을 받은 전원이 이 번 단기선교에 참여한다는 감동을 맛보았다. 배워서 할 일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는 주님의교회 지체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는다. 현재 각 팀은 선교지로 떠날 세부 준비 중에 있다. 오는 주님의 날(7/13)에 전교인 앞에서 단기선교 파송식을 가질 때, 선교지로 떠나는 성도와 남아서 기도로 후원하는 성도 모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의 파도가 출렁거릴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구역과 각 지체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선교사역 참여를 당부드린다.

이희숙 권사 (7-4)

사역지	일정	사역내용	팀원	팀장	연락처
캄보디아	7/20~25	의료, 미용, 문화, 등	42명	박지권	017-261-7005
인도네시아	7/19~24	의료, 미용, 문화, 등	16	변춘석	010-7722-6780
몽골(장년부)	8/14~18	호스피스 홈케어	21	이현식	010-7221-6086
몽골(EM부)	7/13~22	어린이캠프, 유목민촌협동노역	5	나현수	019-266-6453
중국	9/26~10/2	현지사역자지원	10	조명희	019-264-2117
우즈베키스탄(중등부)	7/28~8/2	장애우사생대회, 재활센터봉사	24	김성윤	011-9040-5170
우즈베키스탄(장년부)	9/12~9/17	열방치과10주년지원:의료, 학술, 교육, 체육	20	이문영	016-736-9830

호스피스 환자분이
보내온 편지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기회를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말기암으로 돌봄을 받은 환자분이 호스피스사역팀에 보내온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호스피스 사역팀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주님의교회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김희남입니다.

서울 의료원에서 유방암 4기에 영치뼈와 척추뼈 12번까지 전이가 되어 6개월도 못산다는 선고를 받고 죽을 결심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격려와 후원으로 암도 줄고 정신적인 안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의료원에서 고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암수치가 자꾸 올라간다고 담당 선생님이 PAT(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발생한 곳을 보는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촬영을 하였더니 영치뼈의 암이 4.6cm에서 6.2cm로 자랐다고 합니다.

우선 3개월간 먹던 약을 바꿔보자 하며 그래도 암의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다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야 한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무척 심란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생기니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와 같은 말기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후원해 주시는 은혜 잊지 못합니다.

투병중에 힘들지만 저를 걱정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시는 봉사자들을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격려와 후원이 얼마나 큰 힘과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선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소식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고통 속에서 인내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서울 의료원 호스피스 봉사자에게 온 편지)

주님의교회 20주년 기념시

새벽이슬, 젊은그대!

오네시모, 오! 내 안에 내 속에 사람이!

지평선 너머 흔들리는 하늘 뒤덮고 잿빛 황사바람. 걷고 또 걸어도 기대일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네. 땅거미 마른 풀 등성등성 그림자 지우며 밀려드네. 갯마을 지나 막막한 개막이땅. 땅 건너 산더미 파도 덮치며 부수며 앞길을 가로 막네. 가로챈 빌레몬 주인님 황금전대! 독수리 발톱처럼 허리춤을 파고드네. 형체 없는 발걸음 심장에 대못을 치며 다가오네, 다가오네. 정수리 맥박이 터져나갈 듯하네.

오네시모, 오! 내 안에 고달픈 사람이!

자유롭겠다고

거룩한 율법을 거역한 악한 종을,

부르사,

근심으로 어두워진 눈에 빛과 사랑을, 두려움으로 연약해진 무릎에 강건한 힘을 붙여 넣어주시고
“너는 거룩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주님의교회라, 초대교회를 회복하라”
청하여 아름다운 기업을 시작하신 주님!

때로는 홀으사,

꽃잎처럼 흩어진 자리마다
알알이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
복 주어 기르신 20년, 이제 청년의 때,
이르소서, 젊은 사자의 열정으로 결단하오리다

떠나라!

“새벽이슬처럼 영롱한 젊은 그대,
하늘보배니, 알곡이니,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초등학교문을 떠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성령의 기름부은 만인 제사장이라!
온전한 알곡세상, 새 생명의 농부될지라”

새 도약을 소망하며, 돌아온 오네시모처럼
하나님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이희숙 권사 (7-4)

영아부

7/20 교회

영아부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쏙쏙”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자녀들은 ‘세상은 신뢰할 만하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어린이들의 신앙 발달을 위해 영아부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외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 축복책을 만들어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님과 어린이가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스킨쉽 활동, 성경학습센터, 요리시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민혜 (영아부 전도사)

유년부

8.3~5 안성 엄마목장

이번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리더(I am a leader of God!)이며, 구약성경 말씀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배울 것이다. 첫째, 내가 “세상을 바로 세우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리더”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가 사는 작은 세상에서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리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리더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 너의 승리에 박수쳐 주는 멋진 리더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유년부의 가장 큰 행사라고도 볼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 바로 이때가 바로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리더로 성장할 때입니다. (유년부 이희영 전도사)

레인보우

8.8~10 교회

레인보우 여름수련회는 첫날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합니다. 토요일밤은 교회에서 숙박을 하면서 주일 오전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 시간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아이들에게도 신앙고백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에는 신나는 실내수영장에 가서 예수님과 파도타기를 하면서 모두가 즐거운 한 때를 갖습니다. 그동안 레인보우 주일 설교를 통하여 소개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방마다 준비된 촌나물도 맛보고 문설주에 피도 발라보며 만나와 메추라기, 십계명돌판,...등 가나안 입성 전까지의 여정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열 안수집사(8-3)

초등부

7.27~29 양평농원

초등부 수련회는 ‘내가 누구인지’ 소명을 발견하는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여름캠프의 주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롬 14:8)’으로 세우고, 소명을 발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준비시키려한다.

메빅에배, 신 천로역정, 저녁집회, 찬양기도회, 모듬QT, 미니올림픽, 모듬 성경공부, 캠프파이어, 물놀이 레크레이션, 미션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이 기도로 준비 중에 있다.

(초등부 최락 전도사)

소년부

7.26~28 경기도 수동벨리

소년부는 기존의 수련회 분위기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소그룹 팀별 공동체 게임, 코스게임, 천로역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는 소년부가 되기 위함이다. 수련회를 위해 교사들은 릴레이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총동원 주일로 새 친구와 안 나오던 친구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열게 된다.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잔치가 되도록,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 윤성진 안수집사(7-17)

중등부

8.8~10 양평 리조트

Break Down, Build Up! (롬 12:2)

2008년 주님의교회 중등부는 이러한 다윗과 다니엘의 순전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중등부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세대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

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안에 가득했던 잘못된 우선순위, 가치관, 습관, 생각들을 모두 부숴버리고(Break Down),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Build Up)를 소망한다.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중등부 여름캠프를 통해 200여명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중등부 임경순 전도사

고등부

7/25~27 여산 수련원

이번 여름 수련회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 생각해 보게 된다. 계획에 있는 이유 만으로 수련회를 맞이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마음이 있다.

교사들의 릴레이 금식기도로 준비된 수련회이번 수련회는 “만남”을 주제로 잔치가 펼쳐 지게 된다. 이 시간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귀중한 그분과의 만남, 함께 살아갈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 우리가 소망하는 만남이다.

또한 비전 트립이 8월4일(월)부터 8월8일(금) 일본 교토 나고야 지역에서 있게 된다.

항상 분주한 삶을 살지만, 아이들이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훈련하는 일은 평생에 빠져선 알릴 중요한 훈련이라 생각된다. 우리 아이들이 기꺼이 참여하도록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남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김낙균 안수집사(1-15)

어와나 인게임즈

작은 밀알들이 받은 금메달

“우리 교사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6월 28일 부천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AWANA Games에서 우리 주님의교회 AWANA T&T와 불티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라는 혁혁한 성적을 올리고 돌아왔습니다."주님의교회 어와나 멋져부라~" ..

올림픽 비인기 종목에 출전해 메달을 따냈을 때 왜 코치고 선수고 울고불고 난리인지 이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소년부실에 하나 있는 게임트랙도 장소가 협소해 본부에서 지정한 정규 크기도 아닌데다, 그나마 그것도 불티와 T&T가 나눠 사용하느라 연습 때는 땀별의 운동장 미끄러운 모래 바닥에 넘어져 피 흘리는 아이들을 아이스케~키 ‘뽕따’ 하나로 구슬려 가며 열심히 연습한 결과였기 때문에 팀 코치인 저는 합성을 지르는 아이들을 보며 코끝이 아프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게임만 잘해서 따낸 메달이 아닙니다. 선수로 출전한 이 친구들 목에 메달을 걸어주기 위해 선수로 뛰지 못하는 서러움도 누르고, 하루 종일 ‘지루함’을 상대로 싸우며, 1년간 쓸 목청을 하루에 완전 소진시키며 응원해 준 60여명의 아이들. 제 마음은 이 아이들에게 메달 보다 더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과 교사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정작 자신의 아이가 뛰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는 감사의 옷깃을 여밉니다. 그 땀방울뿐만 아니라 그 영양분에 대해서도! 새벽 출발 시간에 오셔서 배웅해주신 담임목사님의 기도는 천군 부대 같은 힘이 되었지요.

다음주면 AWANA 2008년 1학기 문을 닫습니다. 7살 꼬마에서 6학년 형들까지 모든 AWANA 대원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암송하여 모은 밀알을 선물로 돌려받지 않고 기특하게도 난치병 친구와 우간다에 있는 극빈 친구들을 돕는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장한 선언도 했습니다. “나는 비록 작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대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도우며 세우는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적든지 많든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수만 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작은 밀알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만 잘하지 않습니다. 장난 공격력 100만 파워의 아이들과 매주 전쟁을 치루지만 우리 교사들을 숙연하게 만드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게임시간 트랙에서 흘리는 아이들의 땀방울과 작은 손을 올려 선언하는 아이들의 눈빛에 우리의 심장은 감동되고 고양되며 축복받습니다.

Games의 메달을 목에 걸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메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들의 코치였음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유경(7-16)